

## 사각의 경계 깊이 존재하는 세계를 펼쳐내는 일

김성우 (큐레이터)

샌정의 작업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미묘하게 하얗고 거뭇거뭇한 배경(혹은 전반적으로 꽤 검거나 푸른 톤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색깔의 미묘함(subtlety)은 여전하다)과 그 위를 아주 절제된 제스처로 가로지르는 듯, 혹은 놓인 듯한 빨강고, 파랑거나, 혹은 노랑거나 초록빛 등을 띤 선과 도형들을 볼 수 있다. 배경의 터치는 그 위를 수놓을 형태를 위한 바닥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여타의 요소들과 조응하며 하나의 통일된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듯하다. 전면의 선이나 도형 역시 배경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로 조심스럽게 모종의 추상적 형상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맞닥뜨린 각 요소의 충돌 혹은 조화가 만들어내는 화면은 두꺼운 물질로 드러나진 않지만, 오히려 가늠할 수 없는 아득한 깊이로 관객의 시선을 침잠하게 만든다. 작가의 작업은 회화적 외피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이고 흥미로운 인상을 선사한다. 그의 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종종 추상, 누적된 개인의 기억, 감성과 이성의 시각화, 기하학적인 선과 도형적 요소 등의 언어적 표현과 연결됨으로 끊임없이 그 의미가 옅어지며 지곤 한다. 작업을 해설하는 차원에서 사용한 이러한 규정에 잠시 초점을 맞추어 보자면, 그의 회화는 언어로 구체화되고 분류되어 개별의 키워드로 존재하기에는 쉬이 잡히질 않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길 반복한다. 각각의 의미는 그런대로 사각의 프레임에 담긴 이미지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부의 텍스트에 의해 하나의 의미로 고착되길 요구받는 순간 작가의 회화는 그만의 내재율로 수렴하고 자율성의 영역으로 의미를 수렴한다. 그렇기에 특정 상징이나 맥락과 결부 지어 각각의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읽어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그의 회화에서 이러한 외부의 참조점은 작가 고유의 자유로운 회화적 실천, 화면 위에 펼쳐진 사색의 기회를 제약할 뿐이다. 샌정의 작업은 그렇게 코드화될 수 없는 어떤 세계, 즉 미완, 결핍, 한계가 전제하는 어떤 경계에 구축된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으며, 그가 기대하는 이상적 세계에 닿기 위해 단계, 주변, 구조를 주무르며 남긴 행위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잠시 그의 이전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해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그는 일상과 사적 영역에서 건져 올린 개인적인 정서와 감각 같은 것을 조금은 더 구상에 가까운 이미지 조각들로 형상화 시켰다. 이를테면,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에 대응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벽을 따라 그리거나 (*Wall painting : 'happy solutions'*, 아트스페이스 풀, 2004), 직감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화하는 상태를 여성의 이미지로부터 찾으며(*wooden heart*, 일민미술관, 2008), 낮춤으로부터 찾아오는 멜랑콜리한 정서를 여성이 등장하는 어떤 상황으로 제시(*first glance*, 대안공간 루프, 2008)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회화의 표현적 특성을 바탕으로 구상과 비구상을 분류하기는 하지만, 사실 샌정의 작품이 주는 정서적 인상은 그것이 무엇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게는 이러한 분류 역시 그의 작품을 이루는 회화적 터치나 요소를 관습적으로 정의하던 언어적 제약처럼 다시 또 그의 회화를 하나의 정의로 환원하려는 속박일 수도 있다. 분명 그의 작업이 취득하는 이미지의 기저, 최초에는 작가 고유의 미적 취향과 판단, 그리고 동기를 유발하는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대상이나 상황 등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경험과 같은 분명한 순간에서 시작하여 그때의 기억이나 정서를 그려내고자 할 때 오히려 상이 흐릿해짐으로써 그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치 어젯밤 꾸었던 꿈을 아침에 일어나 꾸역꾸역 복기 하지만 결국 망각으로 조각난 꿈의 서사보다는 그것의 전반적인 톤이나 온도, 감정이나 정서가 지난밤의 꿈속의 사건을 더 온전하게 다잡아 전달하듯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샌정의 회화 앞에서 언어가 지시하는 상황을 떠올리기보다 그저 그의 그림을 붓질이 멈춘 절정의 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작가가 회화로 담아내고자 했던 어떤 순간, 상태, 세계에 이르기까지 앞선 붓질을 흔적으로 그다음을 이어간 궤적이며, 그 궤적은 흔적의 추이를 통해 형태가 몽개질지언정 더욱 또렷이 보고자 했던 순간의 연속이라 할 수 있기에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까지 샌정의 회화를 언어적 규정이나 명시적인 이미지로 붙잡아 고정하는 것이 불완전한 일이라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다시 또 글로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면이란 공간이 가진 한계와 그 안에서 필자의 역할이 가진 도구의 제약 탓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작업이 언어 사이로 흩어지는 것들에 촉각을 세우고, 정해진 인식의 틀 바깥에서 그의 회화를 더 분명하게 하는 감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열리는 세계와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유한함을 말하기 위해 무한함을 이해해야 하고, 수평과 함께 수직이 존재하며, 공간에 시간이 더해짐으로 그다음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과 같다. 샌정의 회화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한 사유에서 시작하여, 화가에게 주어진 가장 작지만 무한한 세계인 캔버스라는 사각 프레임으로 이동한다. 형상은 물감의 뒤섞임, 붓의 흐름으로 사각의 세계-캔버스에 옮겨지고 화면 위에서 더 이상 의미의 충돌과 갈등, 혼돈이 충돌하지 않는, 고요함의 임계점에선 긴장의 순간에 고정된다. 외부의 대상이나 맥락과 결합하여 의미망을 형성하기보다는 감각적인 차원에서 아주 섬세하게 이전과 이후, 이곳과 저곳의 경계 사이에서 균형 잡고 있는 샌정의 회화는 작가의 말처럼 하나의 '세계'에 가깝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것이 '세계'라는 말로 읊아매는 순간 그 세계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이며, 관념적 차원의 이상향을 물질적 차원-회화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소실을 내재하기에 그 자체로 완전한 세계가 될 수는 없지만, 대신 그다음의 세계를 목전에 앞둔,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이 되어주는 '어떤' 세계라고는 것이다. 그렇게 샌정이 그려내는 회화는 모든 것을 무한히 받아들일 세계, 즉 캔버스 위에 감각의 편린을 하나둘 위치 잡아 그로부터 보이지 않았던 다음의 세계를 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